

# 한화, 국민연금에 대우조선 투자 요청

국민연금, 수익성 있으면 투자자로 참여 ... 공동인수 아닌 재무적 투자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화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대우조선 인수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11월4일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양측 실무진간 물밑 접촉에서 한화 관계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이 대우조선에 공동 투자를 해 달라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어떤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투자할 용의가 있다”면서 “조건만 맞으면 투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직 한화에서 투자 조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인수전이 4파전으로 진행되던 10월2일 미국발 금융 위기로 불확실해진 국내 금융시장 상황 등을 들어 투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으나,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상황이 바뀐 만큼 한화가 일정 수준의 수익성만 보장해 준다면 공동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1/05>